

무주반딧불축제 개막 '눈앞'

남대천 설악초 경관 조성 반디포토존·라디오부스 등 준비 착착... 내달 1일 열려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가 9월 1일 막을 올릴 예정인 가운데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즐기는 축제의 재미가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은 초가를 낭만을 선사하기 위해 남대천에 '설악초' 경관을 조성했으며 노닐 듯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등나무운동장에는 반디포토존과 산골도서관, 안성고등학교 방송반 학생들이 운영하는 라디오부스를, 그리고 예체화관 광장에는 반디정원을 마련했다.

또 방문객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반딧불축제장을 투어하며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과 안내소 3곳을 예체화관과 지남공원 일대에 설치했으며, 한풍투와 공예촌 입구 안내소, 주차장입구 등지에는 대형 종합 안내판을 부착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간호사가 상주하는 의료 지원센터도 별도로 운영한다.

예체화관 출연자 대기실에는 선종기와 전자레인지, 물티슈, 쿠션 등을 갖춘 수유실을 따로 마련했으며 유모차와 휠체어 대여소를 운영해 영유아와 노약자, 그리고 거동불편 관광객을 동반 한 방문객들의 원활한 이동을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가 9월 1일 막을 올릴 예정인 가운데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즐기는 축제의 재미가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도울 방침이다. 신비탐사지역에는 자연발효식 이동식 화장실(10대)을 설치했으며 축제장 인근 먹거리식당과 농·특산물판매장 주변에도 임시화장실(6곳)과 음수대(8곳)를 설치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행사장 곳곳에 식물터널과 초가 & 의자쉼터, 그늘막 등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지치지 않고 축제를 즐기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춘 수유실을 따로 마련했으며 유모차와 휠체어 대여소를 운영해 영유아와 노약자, 그리고 거동불편 관광객을 동반 한 방문객들의 원활한 이동을

장 주변 혼잡을 막고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는 도울 예정이다. 무주반딧불축제 지원단 강창수 단장은 "무주반딧불축제는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활력을 안기며 사람과 자연의 소중함을 확인시키는 축제"라며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8 대표축제의 위상에 걸 맞는 축제로 개최하기 위해 프로그램은 물론, 관람객들 편의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정성을 쏟는 축제라는 찬사를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기자

2020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69건 발굴

장수, 국도비 5026억원 규모 추진계획·예산확보 전략 논의

장수군이 27일 2020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갖고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는 장영수 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으며, 발굴된 신규사업 총 69건 국도비 5,026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진안~장수 국도개량(26호선) 등 2021년 목표 사업을 포함한 국책사업 5건,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거점형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임산물 가공산업 기반 구축 등 국고사업 47건, 기타 군특사업 17건 등 크게 3개분야 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앞으로 장수군은 내년도 1월까지 총 3차에 걸친 사업발굴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며, 장수군의 분야별 20대



장수군이 27일 2020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발굴된 신규사업 총 69건 국도비 5,026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중점사업을 선정하는 등 대응사업을 확정해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과 집중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고회를 마친 장영수 군수는 "발굴된 사업이 있어야 확보가 가능한 것"이라며 사업발굴의 중요성의 강조했

으며, "특히, 정부의 투자방향이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과 관련된 분야인 만큼, 지역발전형 생활 SOC 사업에도 많은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국 배구 동호인, 진안을 달구다

진안홍삼배 전국남여대회 103팀 2200명 기량 겨뤄

제9회 진안홍삼배 전국남여배구대회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안문화체육회관과 8개 보조구장에서 열렸다.

진안군배구협회(회장 송서환)가 주최한 이번 배구대회에 전국 각지에서 온 103개팀 2,200여명에 달하는 배구 동호인들이 참가하면서 홍삼의 고장 진안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틀간의 열띤 열전 끝에 남캐배구동호회 전국 최강자가 가려졌다. 남자부는 ▲2부 대구청목배구회, ▲3부(마이산부) 전주V9, ▲3부(홍삼부) 순천배구클럽, ▲장년부 광주빛고을이 최정상에 올랐고, 여자부 ▲3부(마이산부) 나이스동호회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배구 저변확대와 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0년에 창설된 이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 배구 동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국적으로 50여개에 달하는 배구대회가 열리는데 동호인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음에도 이 대회는 꾸준히 참가클럽과 선수들이 늘고 있다.

남자2부 우승팀 대구청목배구회 이진우 회장은 "많은 전국대회 중 패배적인 경기시절과 매끄러운 경기 진행 면에서 진안대회가 으뜸이다"며 "내년 대회가 벌써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올해에만 배구와 역도, 탁구 등 크고 작은 32개 대회를 유치하고 있어 생활 스포츠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진안군의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 덕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무주군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

10월 26일까지 관련 내용 방문·이메일·우편 접수

무주군이 인구정책에 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응모는 무주군 인구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10월 26일까지 공모신청서(무주군 홈페이지 www.muju.go.kr 고시공고)를 작성해 군청에 방문(무주군청 3층 기획조정실 인구정책팀)하거나 이메일(karysj@korea.kr) 또는 우편(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인구정책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내용은 무주군 인구정책 관련 전반에 관한 것일 것인 △결혼·임신·육아·출산·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문화·교육·관광을 통한 인구유입,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농업, 귀농귀촌 활성화, △기타 무주군 인구 감소에 대비한 아이디어면 된다.

무주군은 좋은 아이디어를 낸 1명을 뽑아 상금 100만원(최우수)을 수여하고 우수 1명에게는 50만 원, 장려 1명에게는 30만 원, 노력상 1명에게는 20만 원을 줄 계획이다(기타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3-320-2146)이다.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박선욱 인구정책 담당은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해나가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라며 "행정에서의 노력 외에 군민들의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가 절벽에 부딪힌 우리 군 인구 문제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밝혔다.

공모전에 앞서 무주군은 지난 23일 △문화·관광·체육, △의료·교통·도시계획, △귀농·귀촌 및 농업지원, △인구정책개발, △양육다문화교육지원, △가족친화환경조성, △일자리·기업·취업지원 분야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제안과 홍보 등을 위한 인구 늘리기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본격화했으며 이외에도 인구 늘리기 추진체계를 구축해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주민인식 개선, 전입유도, 저출산 및 고령사회 극복, 일자리 창출 및 청년정책 등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공모전을 통해 채택된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접목될 지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최

제8대 장수군의회(의장 김종문)는 27일부터 31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제293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김종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에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민선7기 첫 추가경정 예산안"임을 강조하며 "예산이 편성방향에 맞게 편성됐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부적절한 추정으로 과도하게 계상된 것은 없는지,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됐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유기홍 행정복지위원장 등이 심사 보고한 11건의 안건과, 장정복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했으며, 이종나 급계 의원이 발의한 「사단법인 장수군 의정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기홍의원이 선임돼 이날 오후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과보고를 받았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사회복지협, 봉사활동 실시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송상모)는 최근 진안읍사무소 강당에서 진안읍 어르신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진안읍지회(회장 설창국)가 주관해 전반적인 행사를 준비해 진안읍에 거주하는 어르신 90여명을 모시고 진행됐다.

가야금 병창, 색스폰 연주, 밴드공연 등 위안잔치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서암봉 봉사, 이마용 봉사, 천연모기 퇴치제, 가포마사지, 열압·열당·골밀도 체크 봉사활동을 벌였다. 공연을 마치고는 푸짐한 점심을 대접했다.

송상모 회장은 "행사를 이끌어 준 진안읍지회와 행사를 도모준 자원봉사자 모든 분, 진안읍 전층선 읍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층선 읍장은 "늘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